

정치 : 국방

계엄 사태로 떨어진 별 19개...군 지휘부 공백 어쩌나

중앙일보 입력 2025.01.02 00:01

지면보기

이근평 기자 이유평 기자

구독

‘12·3 비상계엄’ 이후 군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내란 가담 혐의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장성들의 직무가 줄줄이 정지된 데 이어 일부에 대해선 보직해임 절차가 시작됐다. 대비 태세를 재정비하기 위해 후속 인사가 시급하지만,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국군 통수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당분간 직무대리 등 댄질식 군 지휘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계엄 여파로 현재까지 직무정지된 장성은 진급 예정자를 포함해 모두 9명이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 여인형 방첩사령관·광종군 특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구삼희 2기갑여단장·방정환 전작권 전환 TF장(준장), 정성우 방첩사 1처장(준장 진급 예정) 등이다. 계급장 별의 숫자로 따지면 19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된 여인형·이진우 사령관의 경우 보직해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소로 혐의명이 명확해진 후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 구성과 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등이 곧 이뤄진다”고 말했다. 박안수 총장 등도 이달 초 구속기간이 만료되는데, 기소가 완료되면 같은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ADVERTISEMENT

직무정지와 보직해임 대상자가 추가될 수도 있다. 야권은 계엄사령부 직위자 신분으로 참고인 조사만 받은 일부 장성도 직무 배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사상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직무정지가 이뤄진 이들의 보직은 대북 대비태세와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핵심 직책에 해당한다.

“지명된 직무대리자들이 현재 해당 부대에 위치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대비태세나 작전 임무태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게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대리 체제가 길어질수록 한계가 드러날 것이란 우려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후속 인사는 당분간 이뤄질지 모를 가능성이 있다. 대령관 급은 초·중·상·하 4급이 있는데, 현상은 계급별 초·중·상·하 4급이 각각 1명씩만 있는 상태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이근평 · 이유정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관점의 관점 +



‘자연인’ 보호 조직 아니다 尹, 경호처 사병 취급 말라



“국민과 함께 하겠다”라는 尹 구속수사 받고 사과부터 해라



“한덕수 곧 복귀, 일 처리 마라” 최상목 ‘제한적 역할’의 배경

1/10

- # 지휘부
- # 계엄
- # 지휘부 공백
- # 여인형 방첩사령관
- # 계엄 여파
- # 계엄 사태

0

0

댓글 작성하기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함께 본 기사

“최상목, 독단적 결정” 여당 부글...“탄핵 8부 능선 넘어” 야당 안도

2025.01.02 00:04

[사진] 세계 최장 사장교 ‘고덕토평대교’ 개통

2025.01.02 00:10

‘윤 체포 거부 명분’ 없애기...영장에 “형소법 예외” 적시

2025.01.02 00:14

당신을 위한 추천기사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Innovation Lab

푸바오와 무뎡이 전하는 편지

ILab Original

The JoongAng Plus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스포츠

라이프

피플

스페셜

로그인

전체 서비스

고객센터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청소년 보호정책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